

고깔의 比較 言語學的 研究

金 鎮 玖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Comparative Linguistic Study on *Kokal*

Jin-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Ⅲ. 고깔과 周邊語
I. 緒論	Ⅳ. 結論
Ⅱ. 文獻에 나타나는 고깔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tudy the origins and the meanings of the *Kokal* (고깔).

Comparative linguistic analytical approaches were employed to trace the development of the word, the *Kokal*(고깔).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Kokal*(곶갓, 곧갓) was a general term referring to a variety of head coverings in the period of Choson Dynasty. This broad meanings of the *Kokal*(곶갓, 곧갓) of the Choson Dynasty period has been changed to a narrow sense meaning a conical cap made of folds of the material, mainly used by some of the Buddhist monks in modern Korean.

Also, the phonetic value of the *Kokal*(곶갓, 곧갓) of the Choson Dynasty period changed to the *Kokal*(고깔) in modern Korean.

A variety of words for the *Kokal*(고깔) was found in the different languages such as Latin, English, French, Turkish, German, Mongolian, and Chinese.

The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origin of the Korean

word *Kotkal*(곶갈, 곧갈) or *Kokal*(고갈) and the meanings of it were derived from LL. *Cuculla*(monk's cowl) < L. *Cucullus*(Cap, hood, hood of cloak). Results of this study that the word Korean *Kotgal*(곶갈) or *Kokal*(고갈) is a transliteration of LL. *Cuculla* < L. *Cucullus*.

I. 緒 論

국어사전에 곶갈이란 말은 고갈의 古語이며 모자, 冠이라고 定義되어 있고, 고갈은 스님들이 머리에 쓰는 巾의 한가지이며, 흔히 스님의 상좌들이 쓰는데, 무당이나 농악을 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며, 지난날에는 司憲府, 義禁府의 羅將, 及唱 등의 하급관리들도 썼다고 한다(신기철, 신용철, 국어대사전).

朝鮮時代に 곶갈이란 말은 현대의 고갈이란 말보다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의 고갈은 끝이 뾰족하게 접어서 만든 一種의 帽子 이름으로 남아 있다. 곶갈의 意味는 時代가 흐르면서 좁은 意味로 변하였다.

冠帽의 總稱으로 쓰였던 곶갈이란 말은 冠帽을 대단히 重視하였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었 고, 또한 현재 우리는 이 고갈이란 한국말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고갈이란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다만, 李如星의 곶갈의 語源에 대한 해석이 있을 뿐이다.

本 研究者는 우리나라의 고갈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연유하였으며, 그 원래의 뜻은 무엇인지의 의문을 풀기 위하여 우리 주변언어에서 고갈과 유사한 말을 찾아내어 고갈과 그것들을 비교하여 보는 비교 언어학적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朝鮮時代 머리쓰개의 통칭으로 使用되었던 곶갈이란 말은 철자법이 곶갈(곧갈)에서 고갈로 변하여 현재 우리나라 고유의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은 세계 복식발달 과정에서 어느 언어와 관련이 있는지 찾아봄으로써 세계복식 발달사 가운데 우리나라 古代복식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II. 文獻에 나타나는 곶갈

곶갈이란 말은 朝鮮時代에는 帽, 冠, 冕, 巾, 幘, 巾, 頭面 등을 指稱하는 말로 나타난다. 이것으로 볼 때 朝鮮時代に 곶갈이란 말은 모든 冠帽의 總稱이었음을 알 수 있다.

雅言各非(卷之二)에는 僧徒가 쓰는 摺巾을 弁이라 하며 方言으로 曲葛이라 한다고 하였다. 곶갈은 곧갈, 曲葛 등으로도 쓰였고 現在는 고갈로 쓰인다.

곶갈(곧갈)이란 말이 보이는 것을 문헌에서 찾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누른 곶갈와 푸른신으로 山林에 가리라
(黃帽靑鞋錦去林)〈杜解 144〉
- 누른 곶갈 스니 그되 가들오물 해호숫다
(黃帽待君偏)〈杜解 2113〉

- 흰 곶갈 스고 (著白帽) <杜解 22⁹⁷>
- 곶갈 벗고 (脫帽) <杜解 15¹¹>
- 흰 곶가름 (白幘) <杜解 7²¹>
- 내 또 혼볼 곶갈과 (我再把一副頭面) <朴解上, 20>
- 금전 메워 바근 곶갈와 (金脣寶石頭面) <朴解上, 45>
- 곶가리 싸해 덜시오 <南明上 62>
- 곶갈 하고 <南明下 8>
- 곶갈 쓰고 <三강 孝 35>
- 곶갈을 벗고 <曲 130>
- 누른 곶갈 른 셋노라 <杜重 3⁹⁷>
- 흰곶가름 마름 두들게 벗기와 댕도다 <杜重 7²¹>
- 갓 곶갈 씌워 <松江 2⁹²>
- 두 곶갈이 혼터 다하 너픈 너픈 혼樣은 <靑丘>
- 모쇼를 곶갈 식워 밥 먹기나 다르랴 <古時調, 鄭澈>
- 곶갈관 (冠) <訓蒙中 22, 類合上 30>
- 곶갈면 (冕), 곶갈건 (巾), 곶갈격(幘), 곶갈개 (价) <訓蒙中 22>

現在 여러 地方의 곶갈의 方言은 다음과 같다.

고갈[ko'kal] [방언] [충북] 보은

[충남] 청양

[전북] 남원, 장계

[제주] 전지역.

곶갈[kot'kal] [방언] [경남] 부산

[전북] 장계

깨갈[ke'kal] [방언] [충남] 당진, 홍성.

꼬: 곶갈[ko:k'kal] [방언] [전남] 순천, 구례, 곡성, 구례(외곡리, 화계면)

꼬갈[ko'kal] [방언] [경북] 영주, 안동, 봉화, 울진, 영양, 영덕, 청송, 포항, 청도, 대구, 고

령, 성주, 왜관, 군위, 선산, 예천, 문경, 상주, 김천

[경남] 함양, 산청, 진주, 사천, 충무, 하동, 남해

[충북] 청주, 괴산, 영동, 옥천, 음성, 충주, 제천

[충남] 부여, 논산, 대천, 홍성, 조치원

[전북] 무주, 전주, 이리, 김제, 부안, 순창, 남원, 임실, 진안, 장계

[전남] 진도

[강원] 삼척, 호산, 옥계, 도계, 정선, 평창, 원성, 횡성, 홍천, 춘성.

꼬:갈[ko'kal] [방언] [충북] 단양.

꼭갈[kokkal] [방언] [경북] 봉화, 예천.

꼭까: ㄷ[kok'ka:] [방언] [전남] 보성.

꼭갈 ['kok'kal] [방언] [경북] 영주, 안동, 봉화, 영천
 [경남] 진주, 사천, 충무, 거제, 하동, 남해
 [전남] 완도, 장흥, 영암, 여수, 광양, 진상, 화순, 강진, 고흥, 영광, 함평, 목포, 해남, 장성, 담양, 나주, 광주.
 꽃갈 ['kotkal] [방언] [경북] 김천
 [경남] 창녕.
 꽃갈 ['kot'kal] [방언] [경북] 대구, 영주, 경주, 경산, 영양, 의성
 [경남] 밀양, 울산, 양산, 부산, 김해, 마산, 합천, 거창
 [전북] 군산.
 풍갈 ['kon'kal] [방언] [전북] 정읍.
 피갈 ['kø,kal] [방언] [전북] 이리.

꼭갈, 고갈의 語源에 대하여는 李如星이 𦉳 卽 尖角 突出部라는 語와 𦉳 卽 冠帽라는 語가 組合된 名詞일 것이라고 推定하고, 이것은 頂上이 뾰족한 冠帽의 意라고 解析하였다(李如星, 朝鮮服飾考, 1947, p. 189).

Ⅲ. 고갈과 周邊語

蒙古婦人의 冠帽 가운데 姑姑冠 이라는 것이 있다. 이 冠은 元의 后妃와 大臣의 妻가 使用하였던 것이다. 姑姑는 顧姑, 古古, 故故, 固罽, 固姑, 鷓鴣, 罽罽 라고도 쓴다. 이 名稱은 이와 類音인 蒙古語를 漢語로 音譯한 것이다.

姑姑는 高麗史에도 婦人冠名이라 되어 있다(高麗史, 列傳 卷第二 后妃二 淑昌院妃金氏 條).

高麗史의 姑姑는 元의 姑姑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姑姑는 一名 姑姑里라고도 하였고, 元나라에서 高麗王妃에게 姑姑里를 賜與한 바도 있었다. 이 姑姑里라는 元나라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訛傳되어 簇頭里라고 하였다고 한다(李圭景, 五洲衍文長箋 散稿, 東國婦女首飾 辯證說).

그러나 蒙古어 姑姑里가 瓦전되어 우리 나라의 말이 된 것이 아니고 蒙古어에 *Djockter*(라마승의 모자)라는 말이 있는데 簇頭里라는 말은 이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姑姑里와 *Djockter*는 다른 말이다.

한편, 固姑는 胡婦髻名으로도 나타난다. 龔碧牕의 詩에 보이는 固姑의 注에 胡婦髻名이라 있다. 周錫保는 이것에 대하여 固姑는 冠을 말하는 것이지 髻式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하였다(p. 356).

그러면 固姑는 蒙古婦人 冠名이라 하고 또는 胡婦人髻名이라 說明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冠名인 固姑는 髻名인 固姑와 蒙古語로 두 어휘의 音相이 同一 하였거나 아주 비슷하였을 것이다. 卽 漢音 固姑와 類音인 蒙古어 본래의 말은 同音異語이거나 類音異語였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로서 固姑에 가까운 髻를 蒙古어에서 찾아보면 辮髮을 客古^{ᄃᆞᆫ} (*kekül*) (元朝秘史, 卷 1, 38 丁甲)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鞞攀라 번역하고 있다.

高麗史에 怯仇兒라는 말이 보이는데 (高麗史, 卷 28 忠烈王 元年 卽位の條) 怯仇兒라는 말은 蒙古語이며 客古⁴⁾의 同語異譯이다(白鳥庫吉, 高麗史に 見之たる 蒙古語の 解釋, 東洋學報 V. 18, No.12). 怯仇兒는 開剃를 의미한다.

現代몽고어로 辮髮은 *khukhul*, 말갈기는 *kukul*이라고도 하고 長頭髮, 辮髮 馬等の 鬣, 鷄冠을 *kükül*이라 한다. kalmuck語로도 辮髮, 땅은 말갈기를 *kükül*이라 한다. Kalmuck 國語로는 美麗裝飾을 *keke*라 하며 風雅, 裝飾을 *kekel*, 아름답게 하는 것, 化粧하는 것을 *kekele(kü)*라 한다.

現代몽고어 *kükül*(辮髮)은 元代의 *kekül*이 변한 것이다. (白鳥庫吉, 高麗史に 見之たる 蒙古語の 解釋, 東洋學報, 第 18 卷, 第 12, pp. 149-244). 그러나 元代의 客古⁴⁾은 *kekül* (白鳥庫吉)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kokul*, *kehkul*, *koguhl*, *kogul*, *keghuhl*, *keghuul*, *kokútl*, *kehkiútl*, *kokúptl*, *kehkiúptl* 등으로도 표음될 수 있다.

勒音도 *Lo*, *Lhe*, *Leh*, *Lhei* 등이 있다.

客古⁴⁾는 *kekül*(辮髮), *keke*(美麗裝飾)가 姑姑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推定한 學者도 있다 (金東旭, 李朝前期 服飾研究, 1963, p. 67).

또 한편 固姑라는 말은 만주어 姑姑(*koko*, *gerger*, *gehgeh*)即 女子의 美稱에서 유래된 말로서 後代에는 이말이 帽子를 稱하였으며 俗稱 籠籠(漢音 *gugu kuku*) 帽라 한다고 되어있다(中文大辭典 V. 7, p. 223).

위에서 보면 蒙古 婦人冠名을 漢語로 音譯한 固姑라는 말이 만주어 格格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것이다.

몽고 복식 어휘와 만주복식 어휘 가운데 상당수의 어휘가 다른 언어의 차용어로 음역된 것 또는 차용과정에서 변형된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筆者는 姑姑의 源원과 어원은 만주어 格格에 있다는 見解와 또는 *kükül*(辮髮), *keke*(美麗裝飾)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見解에 동의하지 않는다.

漢語로 音譯된 蒙古 婦人冠名인 姑姑의 몽고어 本來의 말은 漢音 姑姑에 상응하는 類音일 것이므로 冠帽名이면서 姑姑와 類似하게 표음되는 말을 주변어에서 찾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곳갈(고갈), 姑姑, 姑姑里와 類音인 말을 주변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괄호안의 것은 뜻이다.

Eng. *Gugel*(Capuchon, Hood)

Fr. *Cagoule*(Hood가 달린 승려의 Cloak)

Fr. *Coqueluche*(Hood or Cowl)

Turk. *Kukulete*(弁帽)

OE. *Cugle*(Cowl)

LL. (Ec.) *Cuculla* (Monk's Cowl)

L. *Cucullus* (Cap, Hood, Hood of a cloak)

OHG. *Cucula*, *Cugula*, *Chugela*

MHG. *Kugele*, *Kugel*, *Gugel*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언어와 시대에 따라서 LL. *Cuculla* < L. *Cucullus*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姜吉云은 고깔을 Turk. *Kukulete*(弃帽)와 관련시켰으나(姜吉云, 古代史의 比較言語學의 研究, 1990, pp. 93, 321) 위의 예에서 볼 때, 고깔(곳갈)의 類音은 다른 言語에도 많고 곳갈과 가까운 音은 Turk. *Kukulete* 보다는 오히려 다른 언어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앞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朝鮮時代의 곳갈은 그 의미에 있어서도 모든 머리쓰개의 通稱이지 弃帽만을 意味하였던 것은 아니다.

다른 여러 言語가 LL. *Cuculla* < L. *Cucullus*로 부터 여러 변형으로 발달한 것과 같이 우리말 고깔(곳갈, 곧갈)도 이 말의 音譯이며 그것의 한 변형이라는 것이 確認된다.

이미 앞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남아 있는 여러 지방의 고깔의 方音에서도 이와 유사한 音들을 볼 수 있다.

즉 고깔(곳갈)의 연원과 그 語源은 LL. *Cuculla* (monk's cowl) < L. *Cucullus* (Cap, hood, hood of cloak)에서 온 것이다.

곳갈이란 말이 現代 한국어에서도 僧侶의 代義의인 帽子로 남아 있다는 것에서도 LL. *Cuculla* 本來의 意味 卽 monk's cowl 그대로이며 또한 다른 言語에서도 音相뿐 아니라 그 意味까지도 승려의 Cloak에 달린 hood로 나타나는 것으로도 한국어 고깔(곳갈)이란 말은 LL. *Cuculla* < L. *Cucullus*에 그 말의 기원과 意味가 있고, 우리나라의 곳갈이란 말은 이 말의 音譯이고 이 말의 한 변형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元에서 고려왕비에게도 사여된 바 있었던 婦人 冠인 元의 姑姑 또는 古古리는 우리나라의 곳갈(곧갈, 고깔)과 같은 말이고, 이 말의 연원과 語源도 우리나라 고깔과 같이 Cap, hood를 意味하는 LL. (Ec.) *Cuculla* < L. *Cucullus*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LL. *Cuculla* < L. *Cucullus*는 여러 다른 언어에서 전파되고 채택되면서 각기 자기들의 언어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변형을 보인다. 몽고어 姑姑, 姑姑里와 우리나라의 곳갈은 L. *Cuculla*의 변형으로 보인다.

姑, 古, 罽, 姑, 固, 顧의 漢古音은 *ku, kút, kúp*이다.

方言으로는 Swatow, *kò Amoy, ko, k'o, Fuhchau, kò*等 *ko* 音도 있다.

婦人冠名인 몽고어인 姑姑, 固姑, 古古, 故故, 顧姑, 固罽, 鷓鴣, 罽罽, 姑姑里도 LL. *Cuculla* < L. *Cucullus*의 한가지 변형으로서 漢音으로 音寫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固姑가 胡婦人髻名이라고 한 定義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그 定義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몽고어의 婦人髻名에 漢音固姑의 類音에 상당하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類推해 볼 수 있다.

同音 同子이면서 異語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앞에서 논의된 몽고어로 辮髮의 意味인 客苦²⁴의 音譯이거나 長頭髮 辮髮을 뜻하는 現代 몽고어 *kükül* 또는 *khukhul* (plait of hair)에 해당하는 말일 것이다.

IV. 結 論

곳갈이란 말은 朝鮮時代에 帽, 冠, 冕, 巾, 幘, 紒, 頭面 등을 指稱하는 말로 가장 普遍的으로 使用되었던 말이었다. 現代에는 곳갈(곧갈)이 고깔로 표기되고 그 意味도 변하여 끝이 뽕족하게 접어 만든 僧巾의 一種을 지칭하게 되었다.

고깔이란 말은 이미 高麗時代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姑姑, 姑姑里라고 나타나는데 이 말은 元代의 婦人冠名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깔(곳갈, 곧갈)이란 말은 L. *Cuculla* (LL. (Ec.) monk's cowl) < L. *Cucullus* (cap, hood, hood of cloak)의 音譯으로서 다양한 변형이 여러 言語에서 발견되는 것 같이 그 다양한 변형 中의 하나였다. 고깔의 현대적 의미는 아직까지도 僧巾를 지칭하는 것으로 남아 있는데, 이 意味는 LL. *Cuculla* 와 그 意味까지도 同一 한 것이 立證되었다.

우리나라의 고깔 (곳갈, 곧갈)이란 말은 그 歷史가 高句麗 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高句麗라는 말의 연원과 어원이 고깔 (곳갈, 곧갈)과 同一 한데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元代의 姑姑, 姑姑里의 연원과 그 어원도 만주어 格格(여자의 美稱)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L. *Cuculla* < *Cucullus*를 몽고어로 音寫한 것이라고 보인다. 姑姑, 姑姑里, 고깔(곳갈, 곧갈)과 그 音相이 類似하고 뜻도 cap, hood, cowl과 같이 머리쓰개를 지칭하면서 L. *Cuculla* < *Cucullus*에 그 연원과 어원을 가지고 있는 變形은 여러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몽고어 姑姑, 姑姑里, 한국어 고깔 (곳갈, 곧갈)은 그것의 한 變形에 속한다.

參考文獻

姜吉云, 古代史의 比較言語學的 研究. 새문社, 1990.

高麗史.

金東旭, 李朝前期服飾 研究. 韓國研究院, 1963.

金芳漢, 韓國語의 系統. 서울: 민음社, 1990.

방언사전

白鳥庫吉, “高麗史に見之たる 蒙古語の解釋”, 東洋學報, 第 18 卷, 第 12 號, pp. 149-244.

신기철, 신용철, 국어대사전.

類合叢書

李圭景, 五洲衍文長 箋散稿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丁若鏞, 雅言各非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 中華民國 75年.

中文大辭典

訓蒙字會

Karlgren, B.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1966.

William, S. W. Wells.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